

## 희소금속 비축량, 목표의 42% 그쳐

〈정부〉

반도체-차전자 등 핵심소재 13종 100일분 목표에 평균 42일분 확보  
중 등 자원무기화로 공급망 차질엔 한국경제 '제2 요소수' 피해 우려

희토류, 갈륨 등 희소금속 비축량이 정부가 목표로 잡고 있는 양의 42%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갈등이 중국의 광물 수출 통제로까지 이어지면서 각국의 자원 확보전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말 희소금속

13종의 평균 비축량은 42.1일분으로 집계됐다. 희소금속에 대한 정부의 비축 목표는 100일분(중희토류, 코발트는 180일분)이다. 희소금속 13종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희토류, 갈륨, 마그네슘, 리튬 등이 포함된다. 1일분은 국내 산업계가 하루 동안 쓰는 희소금속의 양을 뜻한다.

희소금속 평균 비축량이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건 이들 금속을 사들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비축기지마저 포화 상태에 달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희소금속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국내 기업들이 지금 당장 피해를 보는 건 아니지만 '자원 무기화'가 심해져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축량을 당장 빠르게 늘리기도 쉽지 않다. 대다수 희소금속을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데다 일

부 금속은 최근 3년 새 시장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다가 떨어지는 등 가격도 큰 폭으로 급등락하고 있어 매입 시점을 잡기가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부 비축량을 확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광물 협력 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국은 동맹국 간 광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중국은 거대 자본을 앞세워 아프리카를 비롯한 자원 부국에 집중 투자하는 등 광물을 둘러싼 패권 싸움이 격해지고 있다"며 "과거 석유파동 때 동맹국들끼리 석유를 서로 빌려줬던 것처럼 한국도 MSP 등을 통해 동맹국과 광물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am35@donga.com

▶A3면에 관련기사



호남에 시간당 최대 67mm 물폭탄... 물에 잠긴 목포 광주·전남 일대에 시간당 최대 67mm에 이르는 '물 폭탄'이 쏟아진 24일 전남 목포시 석현동 삼거리 일대 왕복 8차로 도로 약 150m 구간에 최대 성인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 도심이 침수되면서 인근 금융회사와 주유소 등 10여 곳이 이날 오전 문을 닫았다. 이날 집중 호우로 광주 황룡강 장죽교 일대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주택 침수 등 30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목포=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A12면에 관련기사

## 피해 교사 요청엔 학교교권보호위 열어야

교육부, 소극대응 학교장 징계 추진  
尹 "교권침해 불합리한 조례 개정"

교육부가 교권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교보위는 △학교장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소집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정작 피해 교사가 교

권 침해를 학교장에게 신고해도 잘 열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학교장이 학부모 눈치를 보면서 문제를 공문화하기를 꺼려서다. 또 교육부는 교보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장을 징계 등 행정처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도 학교폭력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처하고 학교장의 대응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보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초·중·고교에 설치된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항이 교권

침해가 맞는지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다. 현재 교원지위법에는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부모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데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교육부는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치조례(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에 대한 기준을 담은 고시를 8월 말까지 마련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예나 yena@donga.com ·이성현 기자 ▶A6면에 관련기사



가구 디자이너 김예슬 씨가 3월 22일 스웨덴 남부 도시 룬드 거리에서 손을 활짝 들어 보였다. 김 씨는 휠체어 앞에 특수 제작된 동력장치를 결합해 오토바이를 타듯 자유롭게 시내를 누볐다. 룬드(스웨덴)=특별취재팀

## 50cm 낮은 눈높이로 '無장애'를 디자인하다

장애+테크로 채우다 <2> 휠체어 탄 가구디자이너 김예슬씨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가구 디자이너 김예슬 씨(35)가 바라보는 세상은 걷는 사람보다 50cm가 낮다. 그의 눈높이에서 걷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올해로 스웨덴 생활 6년 차. 예슬이 다니는 공공도서관에는 도서 검색대의 높이가 제각

각이다. 스웨덴인 평균 신장에 맞춘 것부터 키가 작은 사람, 어린이 등에 맞춰 다양한 높이의 검색대가 나란히 있다.

옷가게에서 쇼핑을 하다 휠체어 리프트를 발견하기도 한다. 매장 내 단 높이가 달라 두 걸음만 올라가면 되는 계단인데 말이다.

시내버스를 타면 내리는 문 앞에 휠체어 공간이 널찍하게 있다. 그곳은 유모차를 가지고 버스에 탄 부모들의 '아지트'이기도 하다. "스웨덴에선 마치 누군가의 상황을 미리 헤아려보고 빈틈을 채워준 것처럼 배려가 곳곳에 녹아있어요."

하지만 스웨덴에서도 집에 들어오면 한국과 다를 게 없다. 인테리어, 특히 가구는 철저히 걸을 수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설계돼

있다. 휠체어 이용 경력 28년 차인 예슬에게도 하루하루가 도전이다. 휠체어에 앉아 가 스텔리지 불을 켜면 바로 눈앞에서 불이 타오른다. 싱크대가 높아 재료 손질이나 칼질도 만만치 않다. 수도꼭지에도 손이 잘 닿지 않는다. 찌개가 잘 끓고 있는지 냄비 안을 들여다보기도 어렵다. 휠

체어를 탄 채 뜨거운 요리를 거실 식탁으로 옮기려면 외출타기를 하듯 묘기를 부려야 한다. 식탁이나 책상은 휠체어 탄 사람에겐 너무 높거나 낮을 때가 많다. 다리 사이 간격

도 좁아서 사람들과 같이 테이블에 앉으려면 바퀴에서 딱 걸린다.

예슬은 "장애인이어서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장애가 있으면 혼자 일상을 꾸려가기 어렵게 디자인된 환경 탓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의 가구 디자인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다른 몸'을 가진 사람에게도 안전하고 편안한 가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룬드(스웨덴)=특별취재팀 ▶A4·5면에 계속

서있는 사람 위주로 만든 가구 휠체어 타고도 쉽게 쓸수있게 긴 손잡이 달린 옷걸이봉 등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 디자인

# 2023年 國民株를 公募합니다

전 세계 ChatGPT 시장에서 Google의 Bard와 Microsoft의 Bing과 당당히 겨룰 대한민국의 글로벌 검색엔진 **알통 GPT**에서 주식을 공모합니다.

### 공모 개요

- 발행회사의 상호 : 주식회사 알통
-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일 : 2023년 7월 8일
- 모집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37,400주
- 모집 총액 : 561,000,000원
- 모집가액 : 15,000원 (액면가액 : 500원)
- 청약 기간 : 2023년 7월 24일(월)~7월 28(금)
- 환불 및 주권 납입일 : 2023년 8월 1일(화)
- 청약금 납입계좌 : 국민은행 001590-17-497376 (주)알통

- [청약 관련 사항]**
- 청약방법 : 당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홈페이지 신청 (www.altong.com)
  - 청약자격 :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실명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청약 증서금 : 청약 금액의 100%로 함
  - 청약 증서금은 주권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되며 이자는 없음
  - 청약 수량 : 1인당 최소 청약 수량은 200주, 최대 청약 가능 수량은 10,000주(청약 단위는 100주)
  - 청약 취급처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31 (코오롱빌딩 2차 905호)
  - (주)알통 경영지원팀 전화 : 02-330-3000 / 팩스 : 02-330-3001
- [배정 및 환불 관련 사항]**
- 배정 방법 : 초과 청약 시 청약 증서금 입금 선착순으로 배정함
  - 공모 후 청약 주식 수가 공모 주식 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 증서금 입금 선착순에 따라 배정이 되어 이후 순회 배정까지의 공모 총액이 5억 6천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후 순위 배정자의 경우 청약 주식 수보다 적은수의 주식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배정 공고 및 초과 청약금 환불 통지 : 2023년 8월 1일(화)
  - 환불 및 주권 납입 기일 : 2023년 8월 1일(화)
  - 주식청약금 및 초과 청약금 환불 등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7조 3의 2조를 병행하여 당사는 한국증권금융회와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청약 증거금에 대하여 반환 전까지 초과 청약금 인출 목적 외의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 청약금 환불일에 청약 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 관련 공시 서류는 금융감독원 사이트(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 관련 전화 문의는  
**(02)330-3000**